

아산재단은 'SOS 의료비 지원사업'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.

## 어머니께 새 삶을 주셨어요


안녕하세요, 어머니의 허리 수술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이렇게 편지로나마 감사를 드립니다.

10년 전 아버지는 뇌출혈로 돌아가셨고, 큰 딸인 저와 어머니가 함께 살다가 저의 직장 문제로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. 어머니는 오랜 시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.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잘 걷지 못하셨고, 통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하실 만큼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.

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,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평범한 일상은 꿈도 꾸지 못하셨습니다. 저도, 다른 지역에 사는 두 여동생도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.

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 걱정을 덜었는데, 4개월 뒤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. 어머니는 도저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 제게 말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셨습니다. 결국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와 동생들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수술을 받게 하자고 결심했습니다. 그때 병원 사회복지팀의 도움으로 아산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.

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머니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난 어머니는 무척이나 행복해하십니다. 어머니가 여생을 조금이라도 편히 지내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.

자식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 주신 아산재단에 온 맘 다해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. 저도 작은 일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야겠다 다짐해봅니다. 앞으로 아산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 송명지 드림

